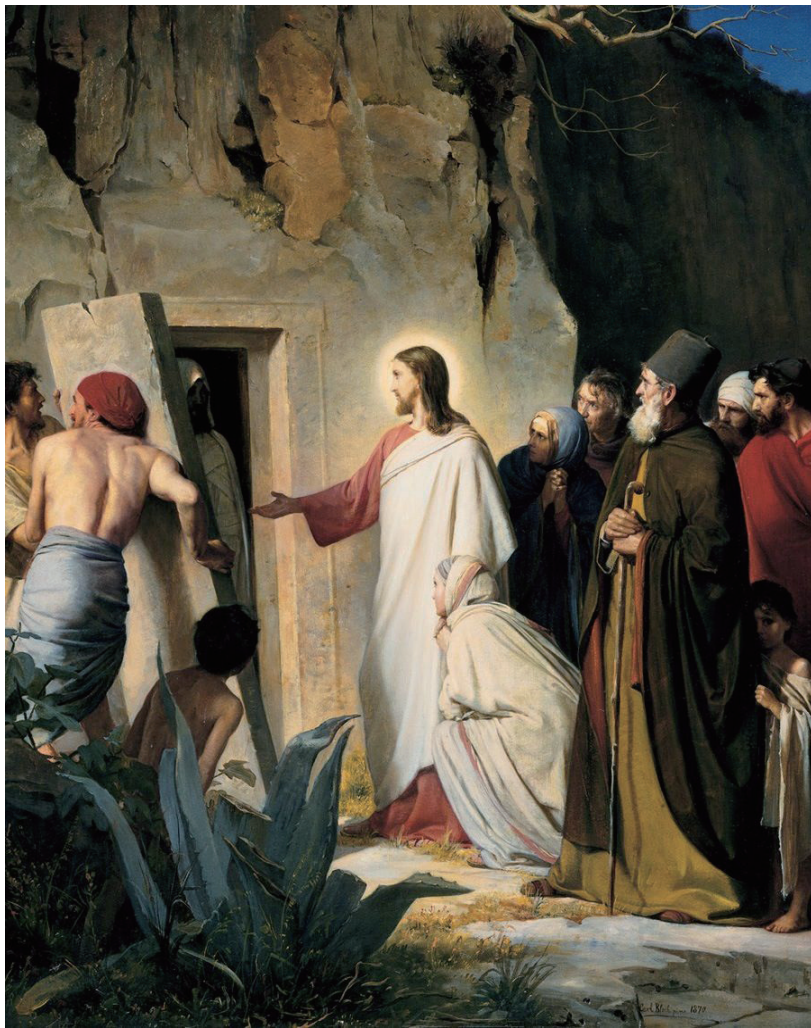


대구주보

사순 제5주일

2020. 03. 29. (가해) 제2207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 11,25-26)



『라자로의 부활』, 칼 하인리히 블로흐, 1875년, 미국 솔트레이크 호프 갤러리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자연속의 인간! “너는 무엇을 믿느냐?”

대덕본당 주임 | 객재진 베드로 신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을 따르다가 바빌론 유배를 당합니다. 예제키엘 예언자는 이런 유배 상황을 무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당신 말씀에 충실하시고 당신 구원 경륜을 주도적으로 완성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꺼내어 되살리고자 하십니다. “내 영을 넣어 너희를 살린 다음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에제 37,14 참조)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계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당신의 의로움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로마 8,11 참조)

그리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죽은 나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삶을 열어 주심으로써 주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지난 1월 늦겨울부터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죽음이라는 무덤가에 있는 듯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다시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 정치의 문제보다 공중보건과 공동선을 우선으로 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인간 중심도 아니고, 하느님과 인간만의 관계도 아니고, 하느님과 우리 그리고 생태계가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죽고 난 뒤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생태적 회개의 부르심을 듣고, 돌을 치우고 냄새나는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와야 합니다. 생태적 회개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하느님께서 참으로 생태계의 창조주요, 생태계의 구세주요, 완성자이심을 세상이 올바르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요한 11,4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요한 11,25-26)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시편 130) **필문**

혼자 울컥하고 혼자 미워하고

- 가장 큰 방해들 : “착각”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 중에 두 가지를 챙겼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생애 마지막 날까지 늘 사용하시던 나무 목주고, 나머지 하나는 목주반지입니다. 그중 목주반지를 늘 껴던 때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겠지만 목주반지는 보통 왼손이나 오른손 검지에 맞추어서 사용하지요. 제 기억에 아버지는 오른손 검지에 목주반지를 끼셨어요. 제가 끼려 하니 작아서 검지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왼손 검지, 오른손 중지, 왼손 중지... 이렇게 껴보니 왼손 약지에만 맞았습니다. 문득... 그렇게 크고 튼튼했던 아버지의 손이, 손가락이 지금 내 손보다 작고 가늘구나 싶어서 마음이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드리니, “아이다~ 원래 너저 아빠 약지에 맞춰서 껴.” ‘헐..... 혼자 울컥했네요.’

인지 오류라고 해야 할까요? 감정에 따른 실수일까요? 아니면 제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이럴까요? 우리는 살면서 상당히 많은 착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쳐요. 기억 오류나 의학적 관점에서의 감각기능 손상, 외상과 외상 후 상처, 같은 경험을 바라보는 태도와 가치관의 차이, 망각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투사가 착각의 원인이며 동시에 같은 결과물을 낳게 합니다. 투사(Projection)는 개인의 성향과 특성,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외국에서 동양인들이 언어적, 물리적 폭행을 당한 기사를 보면, 여기서 가해자들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개인의 불안과 두려움, 경제적 손해를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합니다. 전형적인 투사 행위입니다. 이러한 투사 및 착각은 우리 일상에서도 다반사에요. 부모가 하지 못했던 공부를 자녀에게 투사(착각) 하여 자녀의 성향, 능력, 재능과 별개로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구 욕망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소위 남 탓, 배우자, 가족, 친구나 지인, 정치, 정부, 세상 탓 등등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말 올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주제들도 있겠지만, 투사해 놓고 착각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리 되어야 하는데’라고 여기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하느님이었으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사하여 착각해놓고 믿는 것이지요. 대다수의 사이비 종교들도 그러합니다. 이 착각은 진정한 치유에서 가장 큰 방해물 중의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착각/투사를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개의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문**

“주님, 당신의 손으로 멈춰주십시오.”

2020년 3월 18일 바티칸 뉴스 | 번역 김단희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하는 한편,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 곁을 지켜달라고 모든 이에게 당부했다.

교황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만들어낸 일상의 어려움들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권고했다. “우리는 소소한 것들의 구체성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우리와 가까운 이들에게 보이는 작은 친절과 같은 행동들 말입니다. 우리의 보화는 이 작은 것들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생 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소소한 표현들, 곧 다정함, 애정, 연민의 몸짓들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이어 교황은 “따뜻한 음식, 손길, 포옹, 전화 연락”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상의 구체적인 측면들과 맞닿아 있는 이 익숙하고 세심한 몸짓들이 삶에 의미를 더하고, 우리들 사이에 친교와 소통을 만듭니다.”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사람들 간의 소통이 종종 “가상”의 것에 머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새로운 의미의 친밀함을 개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배려와 인내로 이뤄집니다.” 교황은 식사 시간에 대화가 없는 가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은 텔레비전을 보느라, 아이들은 휴대전화를 보느라” 바빠 아무런 대화도 없이 식사하는 것이다. 교황은 이들을 “서로에게서 고립된 수도사들”이라 칭하고 이 가정에는 그 어떤 소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

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요구, 고뇌, 희망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구체적인 표현들로 이뤄진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이 고통의 시기를 통해 우리가 이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또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을 희생해 타인을 돕는 이 사람들이 바로 작은 친절의 구체성을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이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 곁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그들과 동행”하도록 호소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위로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교황은 최근 인상 깊게 읽은 글을 떠올렸다.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의 이 글에서는, 세금 납부액이 줄어들면 의료 서비스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교황은 신앙이 없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희망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직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신앙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들도 모두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와 가족,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재행 안드레아 (1776~1839년)



‘종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이재행(李在行) 안드레아는 충청도 홍주 출신으로 20세가 넘어서야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입교하였다. 본래 성격이 꼴딱하고 관대하여 존경을 받았던 그는 신앙을 받아들이자마자 성실하게 교리를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고향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산골로 은거해 살았다.

이후 안드레아는 오랫동안 이곳저곳으로 이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가난 속에서도 언제나 인내심과 박애 정신을 보여 주었으며, 가족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1827년 정해박해가 일어나자, 안드레아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면서 격려하였다. 포졸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친 것은 경상도 순흥의 곰작이(현 경북 봉화군 물아면 오전리)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포졸들이 쳐들어오자 그는 기꺼이 그들을 따라 안동으로 끌려갔다.

안동 관장은 이재행 안드레아가 끌려오자 천주교 신자임을 확인한 뒤, 혹독한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하였으나 그는 꼴딱하게 이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신앙을 증거하였다.

“천주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사람을 기르시는 가장 높은 아버지이십니다. 착한 일에는 상을 주고 악한 것을 벌하시는 이도 그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흠송해야 할 본분을 갖고 있

며, 따라서 저도 그분을 흠송하는 것입니다.”

안동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은 후 안드레아는 대구로 이송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감사가 여러 차례 달콤한 말로 유혹하였지만, 그는 결코 천주교 신앙에 대한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

이후 안드레아는 동료들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12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 다시 한번 배교 여부를 묻는 문초가 있었는데, 이때 형조에서 임금에게 올린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재행은 여러 해 동안 천주교 교리를 외우고 익혔으며, 죽기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으므로 법에 따라 처단하고자 합니다.”

임금이 사형 집행을 윤허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이 쓰던 물건과 옷을 다른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839년 5월 26일(음력 4월 14일), 안드레아는 마침내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그때 이를 바라보는 죄수와 옥졸들이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범 때문이었다. 순교 당시 이재행 안드레아의 나이는 63세였다. 이후 포졸들은 그들의 시신을 수습한 뒤 예를 다하여 장사를 지내 주었으며, 신자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특별히 공경하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에제 37,12ㄹ-14	제 2 독 서	로마 8,8-11	복 음	요한 11,1-45
화 답 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यो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사순 제5주일 주일미사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집전



이번 주 주일미사는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집전으로 봉헌됩니다.

시청 천주교대구대교구 유튜브,
가톨릭신문 유튜브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지된 지금,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매일미사 방송시간

TV 월~토 06:00, 12:00, 18:00, 21:20 | 주일 06:00, 09:00, 12:00, 18:00, 21:00

라디오 매일 05:00, 18:05 | 유튜브 'TV매일미사' 검색

매일 05:00 이후 cpbc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성금 후원계좌 : 대구은행 041-10-003277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코로나19 피해 성금 접수현황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체안의 주님을 영할 수는 없지만

박성규 엘리지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전달출(토마스데아퀴노) 신부
2010년 3월 29일
- 조차성(바오로) 신부
1929년 4월 1일
- 서영민(알렉산델) 신부
2014년 4월 2일
- 황주철(로제리오) 신부
2013년 4월 2일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문의: 노아 수녀, (010)9353-1773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4.5(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만 35세

문의: (010)9937-0901

행사 | 모임

제1회 교구장기 파크골프대회

일시: 무기한 연기

장소: 대구 강변파크골프구장

문의: 파크골프동호회,
(010)7743-5996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3월_최동석(안드레아) 신부

4월_이정욱(안드레아)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알산밀북카페 개강

전현호 신부_4.22(수) 10:30

최동석 신부_4.16(목) 10:30

최성준 신부_4.17(금) 10:30

문의: 622-1900

밀알회 후원자 모집

교구 내 사랑이 필요한 곳에

밀알회가 함께합니다.

형제적 사랑 나눔에 함께해 주세요

문의: 422-3411(내선 1번)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성가양로원(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 가는 길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산책로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남자 어르신도 가능)

문의: (054)974-8122

(010)6485-7796

채용 | 안내

침산성당 사무직원 채용

자격: PC가능, 초대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접수: j3234@hanmail.net

문의: (010)2076-1178

가톨릭피부과의원 피부과 전문의 채용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문의: 320-2121 / (010)6653-8022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싹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캐슬병원 500m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노성권 아우구스티노

하마의사의 건강벨트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진동 학회장
대구 경북지배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053)252-0418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053)752-9797

몬스타도리스

프리티미엄 주아간보호/신축4층건물(센터전용)

원장 차명진(에스텔) 사회복지학 박사

법원 뒷편, 범어공원(아시골) 앞

053)744-0900 | 010-2020-8304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053)942-8822

헤렌 디자인하우스

프리미엄 디자인가구

박성용(알벨도)
권나경(수산나)

대구시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가구를 지하2층)

Cell : 010 7766 3198

신령성체의 기도

오, 나의 예수님,
당신의 발아래 엎드려 당신의 거룩한 현존의 심연 안에서
하찮은 저의 마음과 통회하는 저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 사랑의 성체 안에서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제 마음은 당신께 드리는 초라한 거처 안에서 당신을 영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성체를 직접 영할 수 있는 기쁨을 기다리며
영적으로나마 당신을 모시길 원하오니,
오, 나의 예수님, 제가 당신께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오소서.

당신의 사랑이 삶과 죽음을 통해 저의 온 존재를 불타오르게 하소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희망을 걸고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I “미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TV를 통해 미사에 함께하고 있는 신자 여러분들이 ‘신령성체’를 하길 권고하는 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어려운 이 시기에 ‘신령성체’를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리스토리결혼정보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1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신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이데오피스·문구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
흑백복사기(A3) 중고 기증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의학박사
(현 안세대 외래교수) 박종원 (소시모)
안과전문 의 장주현 (비비안나)·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대구대교구 월명성모의 집 실버타운 노인 복지주택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성모님 사랑 안-
안락한 노후생활을
문의 054)434-2898
김천시 남면 주천로 1448-16

곽재혁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前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